

# 코로나 확진 급증하는데...허술한 재택치료체계

### 자가진단키트 구입 '하늘의 별따기'...약국·편의점 곳곳 품절 광주·전남 관리병원 부족...전남 6개 군 전담클리닉조차 없어 확진 판정 하루 지나도록 별 조치 없고 치료약 받기도 힘들어

오미크론 확산으로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2000명을 넘어서는 등 '폭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재택 치료 대응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했던 RAT(신속항원검사) 용 자가진단키트는 품절된 동네 약국·편의점 등이 많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고 재택 치료자 관리 병원이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정부 지정 동네 병·의원도 턱없이 부족해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

◇주말, 자가진단키트 구하려 한 시간 돌아=A(50)씨는 6일 자가검사 키트를 사러 동네 약국을 찾았지만 "품절"됐다는 말을 들었다. 오기 전 자가진단검사를 해오라는 자녀가 다니는 학원측 요구에

약국을 찾았는데, 주말이라 문을 닫은 약국도 많다 보니 동네에서 구입하지 못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동네 편의점을 모두 뒤졌지만 재고가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가까운 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았는데, 본인만 검사해줄 수 있다는 말에 다른 약국을 뒤졌다. 편의점 몇 곳에 헛걸음을 한 뒤에야 찾은 약국에서 가까스로 2개를 구입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대응 단계로 접어들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검사 수단을 추가했고 인근 약국과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6일 오전 광주지역 약국 10곳을 확인한 결과, 4곳만 구입이 가능했다. 6곳은 품절됐고 일요일이라 추가 물량이 들어오지 않

았다고 했다. 그나마 상당수 약국이 문을 닫으면서 구입하기는 더욱 힘들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이날 무작위로 둘러본 편의점 중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편의점 입구에 '자가진단키트 판매중'이라는 팻말을 붙인 곳에서도 구입하기 어려웠다.

광주시 서구 선별진료소에서 만난 한 50대 여성은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할 곳이 없어 선별진료소를 찾았다"면서 "여기에서는 대기자가 너무 많아 10분 만에 나오는 검사 결과를 위해 1시간 넘게 기다야 했다"고 말했다.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 현행 PCR(유전자증폭) 검사만으로는 검사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어 검사 수단을 추가한 것인데, 정부 의도와 달리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검사받을 동네병원이 어디예요?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외에 PCR검사와 RAT검사 등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지정의료기관)을 지정했다. 호흡기전담클

리닉의 경우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정부가 지난해 1억씩 시설 지원을 했다.

호흡기지정의료기관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운영 중인 동네 병·의원이다.

광주에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23곳, 호흡기지정 의료기관 38곳을 운영 중이다. 전남도 전담클리닉 15곳, 지정의료기관 40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진도·강진·보성·곡성·장성·담양 등 6곳은 1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곳 주민들은 코로나 증상으로 검사를 받으려면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군 단위 지역은 자동차로 이동하는 거리도 만만치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휴일인 일요일 문을 여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절반 수준(광주 11곳·전남 4곳)에도 미치지 못해 증상이 있어도 평일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재택치료, 하긴 해요?" =B(32)씨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들어갔지만 하룻동안 어떤 연락도 없었다.

A씨는 "증상이 있어 불안했는데, 보건소에 연락을 해도 닿지 않았다"며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가 지난 4일 역학조사관에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재택치료 전담기관인 광산구 소재 한 병원 의사와는 이날 오후에야 통화가 됐다.

A씨는 "보건소 담당 공무원도 4일 만에 배정받았고 치료약 가져다 줄 지인도 없어 쿼서비스를 불렀다"고 말했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위험군과 위중증자 환자를 제외한 재택치료자는 광주 718명, 전남 4362명에 이른다.

이들의 재택치료를 관리할 의료기관은 광주 23곳, 전남 41곳에 불과하다. 당국은 이들 의료기관이 동시에 광주는 4490명, 전남은 6000명까지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하루가 넘도록 별다른 공지조차 하지 않아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미흡한 대응체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7일째인 6일. 소방 구조대원들과 작업자들이 붕괴 건물 서쪽 2층 부근에서 절단기를 통해 철근 구조물을 절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마지막 1명 찾아라” 실종자 수색 총력

###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 4명 수습·1명 구조작업 진행중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구조당국이 마지막 1명의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쏟고 있다.

39층부터 23층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사고 직후 추정했던 작업 위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잔해물 더미도 워낙 많아 나머지 미발견 실종자의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실종자 6명 중 5명의 위치가 확인된 상태로,

이들 중 4명이 숨진 채 수습됐고 1명에 대한 구조작업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1명(1층)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26층(1명), 27층(1명), 28층(2명)에서 발견됐지만 나머지 1명은 아직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위치를 확인한 1명의 매몰자 구조를 위해 미니굴삭기 2대를 투입, 붕괴건물인 201동 27층 2호라인 쪽에 10점 넘게 층층이 쌓인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를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7m 아래인 26층 2호 라인 거실 창 측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몰자를 수습하려면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쌓인 콘크리트 더미를 위에서부터 하

나씩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조당국은 이 과정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수색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현대산업개발측은 붕괴건물 북서쪽면에 추가 설치되는 타워크레인 관련, 거푸집 작업이 완료 중이며 7일부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구조 작업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목표는 26층에 발견된 실종자의 구조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 실종자의 발견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음란동영상 링크 주소만 전송 받았다면?

### 법원 "다운로드 확인 못해...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동영상 파일이 아닌, 음란 동영상 링크 주소만 전송받은 경우, 음란물을 받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A(33)씨는 지난 2020년 3월 2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에 접속, 게시판을 통해 치어리더 동영상상을 요청한 뒤 텔레그램 채팅창으로 치어리더 영상·사진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100여건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전달 받았다. A씨는 동영상을 요청하면서 사이트 개설자로부터 전달받은 가상계좌로 3만원을 송금했다.

검찰은 A씨를 불법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전송된 링크 주소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치어리더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뿐이며 함께 전송된 링크를 클릭하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줄 몰랐다고 반박했다. 또 링크를 열어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사실도 없고 링크 전달만으로 자료를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링크를 클릭해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도 몰랐고, 다운로드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 소유 PC, 휴대폰, 아이패드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운로드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A씨는 링크를 클릭해 자료를 다운받아보려다 실패한 뒤 대화방을 나갔고 즉시 텔레그램을 삭제, 링크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잠시 링크를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링크에 연동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계속해서 사실상 점용 또는 지배하에 둘 의사를 가지고 보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사이트 게시판을 자료를 요청하면서 올린 글 제목으로 보면 음란물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송된 링크에 연동된 자료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게시판을 올라온 다른 글 제목을 복사해 들여서 올린 것 뿐이라는 A씨 해명을 납득하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고교생 격리 해제 나흘만에 숨져 방역당국, 코로나 연관성 조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됐던 고교생이 격리 해제 후 나흘 만에 숨져 방역 당국이 코로나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5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D고교에 다니는 A(17)군은 지난 4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A군은 자가격리를 하던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주일간 재택치료를 거쳐 지난달 31일 격리 해제됐었다.

A군은 이후 지난 3일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측은 코로나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추정했고 방역 당국은 A 군을 코로나19 사망자로 분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A군은 체육을 전공하고 건장한 체격에 기저질환도 없었고 백신 2차 접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동료 간호사 탈의실 몰카 40대 남성 간호사 적발

동료 간호사가 임시로 사용하는 탈의실에 휴대 전화를 숨겨 촬영한 40대 남성 간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광주동부경찰청은 광주시 동구지역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 간호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병원에 임시로 마련한 여성 간호사 탈의실 내부에 동영상 모드로 해놓은 휴대 전화를 종이상자에 숨겨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병원 측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촬영한 영상 규모 등을 확인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개> \*QR코드: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 4342	1	순천시 도장길40, 1203동 1층 105호 [연향동, 돌산에코지오아파트] 84.9763㎡	아파트	176,000,000	
2021타경 54200	1	순천시 덕월길22, 105동 805호 [덕월동, 우성아파트] 60㎡	아파트	89,000,000	
2021타경 54507	1	광양시 광양읍 통경1길11, 103동 2층 202호 [창덕에비발아파트] 84.76㎡	아파트	150,000,000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54149	1	구례군 산동면 원달리 488 797㎡	전	55,226,7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기타]					
2021타경 2117	1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301-9 5962㎡ [수목충각273.28㎡ 부속건물 단층 화장실 15.0	공장	1,325,179,76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매각포함, 기계기구OverHeadCrane의1정매각포함

### 매각물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21타경 2117	1	㎡ 제시외 단층 현관 등 155㎡ 동소 1호 단층 493.2㎡ 부속건물 단층창고 20㎡ 제시외OverHeadCrane 등 3식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301-10 627㎡ [공유차차시리이엔지지하1/2]	공장		제시외기계기구 매각포함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할 때에는 매수신청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청이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매각기일 : 2022. 2. 21. [월] 10:00
- 매각결정기일 : 2022. 2. 28. [월] 16:00
-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청

5. 매각방법

- 입찰병정 비치된 기일입찰장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봉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공표기간 별첨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계약을 체결한 문서(일일 보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최고기매수신청인과 차순위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 매각결과 및 대금납부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종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이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상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에서 자유되며, 미납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부담권, 가압류권은 승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담권이나 가압류의 압수통지 등을 받은 후 통째로 매수신청인이나 특정 매수신청인만 매수 신청한 경우에는 매수신청인, 국민주택관리위원회 등 기한 상정서를 발송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실시한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어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자가 채무의 일부가 매수인에게 매수인에게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주의사항
- 매각의 주체 또는 참가인원에 최소금액의 부담금 등이 불충분 납부된 후 주된특별입찰신청인이 매각을 기하고 있는 입찰자이나, 사업 자택상환을 마친 입찰자의 입찰 때에는 그 입찰보증금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입찰보증금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일까지, 현충조서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무리없이 민사청탁(신청)과 비치하여 열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매각조건외 내용은 매각결정일전까지 열람할 수 있다.
- 입찰병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서류(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서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해서 최고가매수신청인이 필요하지 않음에 상당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물건은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취소, 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신분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취소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무리없는 게시문의 공고와 병행하여 매각(매각결정)에서 통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방치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매각결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센터
- 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를 발송할 경우에도 열람이 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의 열람이므로 제공한 것으로서, 즉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유로 해당법원에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공고신청이나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반환에 나서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결정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호관 오재홍